

라

동학사상의 영세불망(永世不忘) 인간관에 나타난 리미널리티

Liminality in Donghak Yeongsebulmang View of Humanity

연구 개요 및 목적

본 연구는 동학사상의 인간관에 내재하는 영세불망 사상과 이에 수반되는 리미널리티 양상을 검토한다.

주요 연구 질문

- 동학 인간관의 변모 과정과 리미널리티의 철학적 의미
- 초월천 개념의 개입이 가져온 천관지관인간관의 변화
- 성-속 관계의 재편과 자생적 근대성의 발현 양상

연구 방법론

- 사상사적 문헌 분석 및 동학 관련 주요 사료 고찰
- 『동경대전』, 『용담유사』 등 주요 원전 분석 종교인류
- 학적 리미널리티 개념 적용을 통한 해석학적 접근

이 연구는 동학사상의 인간관이 갖는 현대적 의미와 한국 사상사에서의 위치를 재조명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.

동학사상의 배경과 전개

19세기 한국의 사회종교적 상황

- 성리학 중심의 지배 체제 경직화
- 서구 열강의 침략과 위기의식 고조
- 서학(西學)의 영향과 새로운 사상적 변화
- 민중의 고통과 탐관오리의 수탈 심화

동학의 형성 배경

- 최제우의 종교적 체험과 '시천주' 사상
- 서양 종교에 대응하는 '동학(東學)' 제창
- 유불선 삼교와 차별화된 자생적 사상 체계
- 민중 구제와 사회 변혁 지향

동학교조의 활동

- ⌘ 1860 최수운 천시문답(天師問答), 동학 창도
- ⌘ 1864 최수운 순도(殉道), 포덕활동 중단
- ⌘ 1860년대 후반 최시형의 『용담유사』, 『동경대전』 복구
- ⌘ 1880년대 교세 확장, 전국적 포교 활동 전개

동학농민운동과 이후 전개

- 1894년 동학농민운동: "보국안민"의 기치
- 일본의 개입으로 실패, 그러나 사상적 확산
- 천도교로의 발전 및 신종교 운동 영향
- 한국 근대성의 자생적 경로 제공

영세불망 인간관의 특징

초월천과 오심즉여심

- 초월천의 개입으로 인간의 지위 격상
- 오심즉여심(吾心卽汝心): 인간과 상제의 마음이 통함
- 하늘과 땅 사이의 인간 → 천지와 동급의 존재로 격상
- 시천주(侍天主)를 통해 상제를 모실 수 있는 지위 확보

불연기연(不然其然)의 인식론

이해하기 어려운 초월적 세계(불연)와 이해 가능한 경험적 세계(기연)의 연결을 통해 인간의 지위를 재정립

인간관의 변화 과정

- 천사문답 → 포덕활동 → 순도(殉道) 과정에서 변화
- 초기: 초월천에 의한 지위 격상 강조
- 후기: 인내천(人乃天) 개념으로 확장
- 내유신령(內有神靈) 개념으로 인간 내면의 신성화

사제·신도 구분 철폐

- 서학의 평등사상은 인정하나 사제·신도 간 계급적 차이 비판
- 접주제(接主制): 사제와 신도의 경계 허물기
- 무교회주의적 특성: 모든 신도가 직접 천주와 소통
- 성·속의 경계 재배치와 종교적 평등주의 구현

각자위심 vs 각지불이

서학의 각자위심(各自爲心)	동학의 각지불이(各知不移)
· 천주는 외부에 존재(표층 종교)	· 천주는 내부에 존재(심층 종교)
· 구원의 증명 = 속세의 성공	· 구원의 증명 = 내면의 성찰적 윤리
· 서양 근대성 기반 마련	· 자생적 근대성의 토대 제공

영세불망(永世不忘)적 인간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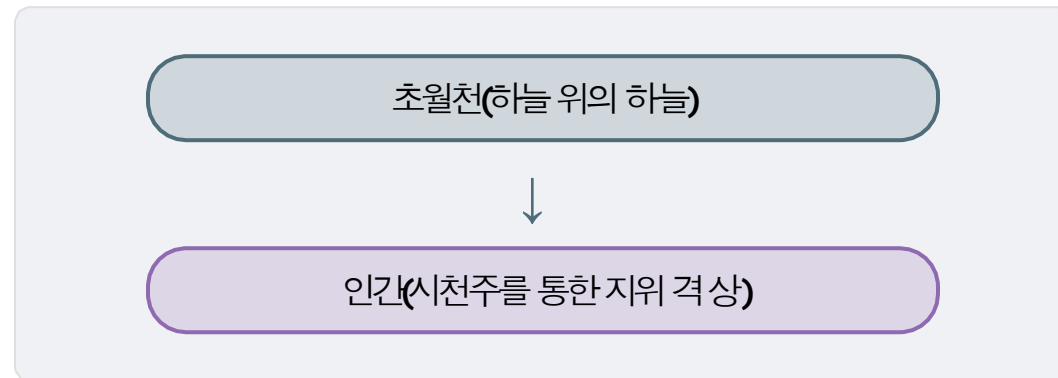
인간이 천지화육에 동참하는 존재로서 초월적 가치를 영원히 잊지 않고 실천해야 하는

내유신령(內有神靈) 천인관계의 리미널리티

시천주와 조화 개념

- 시천주의 '조화'는 **내유신령** 으로 표현
- 서학의 유일신적 천인관계(신존인비) 극복
- '오심즉여심'을 통한 천인합일의 경지 부활
- 하늘 위의 하늘과 마음으로 직접 연결되는 인간

천인관계의 변화



- 초월천의 개입으로 인간의 지위 격상 천지화육
- 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관 변화

신분 체계의 재편

- 사제와 신도 간의 위계 철폐
- 양반·상민 구별 없이 하늘에 직접 연결
- 접주제(接主制)를 통한 종교적 평등 구현
- "온나라 양반되기"로 표현된 평등 지향

성(聖)-속(俗)의 재배치

- 기존 성-속 경계의 해체와 새로운 재배치
- 성리학: 양반(성)과 상민(속)의 구별 → 동학: 모든 인간 내면에 신령(성)
- 자생적 근대성의 리미널리티(경계성) 발현
- 종교적 지위 상승이 사회 변혁의 동력으로

외유기화(外有氣化) 지인관계의 리미널리티

개벽과 조화를 통한 지위 변화

- 시천주 사상을 통한 땅의 위상 격상
- 천지 위계질서(천존지비)에서 평등한 관계(천존지존)로 변화
- 구속억압에서 창조생명의 원천으로
- 동학의 "조화" 개념: 상반된 요소들의 리미널한 경계 통합

사회적·계급적 경계의 허물기

- "온나라 양반되기": 신분제 해체의 종교적 정당화
- 전명숙의 동학이념: "상놈을 양반으로, 천인을 귀하게"
- 왕후장상의 욕망: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들의 내적 동기

"본래 동학이 보국안민(輔國安民)을 주장하였음은 후천 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 았으나 마음은 각기 왕후장상(王侯將相)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..." 『전 경』)

지상천국과 지상신선 개념

- 다시 개벽을 통한 지상천국 실현 구상
- 지상신선: 시천주를 깨달은 인간의 새로운 위상 땅의 속성 변화
- 하원갑을을 지난 호시절의 순환 사상
- 동방의 힘: 서학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관 제시

외유기화의 리미널리티 양상

리미널리티의 사회적 발현

반구조성: 전통적 위계질서에서 벗어난 일탈적 공간 형성

커뮤니타스: 공동체적 실천에 기반한 사회 변혁 운동

경계 넘기: 성(聖)과 속(俗)의 재배치를 통한 자생적 근대성

창조성: 조선시대 억압되었던 창조적 "조화" 요소의 해방

동학사상과 자생적 근대성

성-속(聖俗) 경계의 재구성

- 초월천의 개입으로 인한 성속 질서의 재편 시
- 천주 개념을 통한 대중의 종교적 주체화 시제-
- 신도 위계 철폐로 인한 종교적 민주화 왕후장
- 상이 될 수 있는 종교적 정당성 획득

리미널리티의 변혁적 특성

- 전통 질서와 새로운 질서 사이의 경계적 위치 조
- 화(調和)를 통한 모순의 융합과 극복내유신령외
- 유기화의 상호보완적 리미널리티

"동학사상은 하늘 위의 하늘이 개입하였지만 서교와 달리 하늘 안의 하늘 인 천지 개념도 포함했기에 일반 신도도 하늘 위의 하늘과 마음으로 연결 될 수 있었다."

자생적 근대성의 특징

- 서구적 근대와 달리 종교적 토대에 근거한 근대화
- 평등사상에 기반한 신분제 극복과 사회 변혁
- 내적 성찰과 외적 실천의 균형 모색
- 시천주 통한 자생적 계몽과 주체성 확립

동학 이후의 사회적 영향

- 천도교, 원불교 등 신종교 운동에 영향
- 3.1운동의 사상적 토대 제공
- 조화와 상생의 가치 확산
- 현대 한국 사회운동의 정신적 원류

자생적 근대성의 리미널리티 의의

동학사상은 서구적 근대성과 전통 사이에서 독특한 리미널리티 영역을 창출하여, 기존 성-속 질서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창조적 변혁의 계기를 제공했다. 이는 종교적 평등의 가치가 사회적 평등으로 확장되는 자생적 근대화의 길을 열었다.

결론 및 의의

동학사상 리미널리티의 본질

- 초월천 개입에 따른 신분질서의 균열과 재편
- 시천주 개념을 통한 천인합일 사상의 재활성화
- 내유신령외유기화의 조화를 통한 성-속 경계의 재배치
- 지상천국, 지상신선 개념을 통한 현세 변혁 지향

영세불망 인간관의 현대적 의미

- 인간 존엄성의 철학적종교적 기반 제공
- 사제-신도 구분 철폐를 통한 평등 사상의 실현
- 내적 성찰과 영적 자각을 통한 현대 사회 비판
- 자생적 근대성의 한국적 모델 제시

연구의 시사점

- 한국 전통 사상과 근대성의 연속성 재해석
- 근대화 과정에서의 동학적 영성과 윤리관 조명
- 인간관을 중심으로 한 동학·유교·서학의 사상적 관계 재고
- 동학 이후 신종교 운동의 계보학적 이해 심화

후속 연구 방향

- 초기 동학과 후기 동학의 인간관 변화 비교 연구
- 동학대순사상의 인간관 비교 및 상보적 해석
- 현대 한국 사회운동에 나타난 동학적 요소 탐구
- 글로벌 맥락에서 동학 인간관의 현대적 재해석

동학사상의 영세불망 인간관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닌,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는 사상적·실천적 자원으로서, 인간 존재의 근원적 가치와 상호연계성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.